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배포 : 2024년 5월 18일(토)

윤석열 대통령,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

- 취임 이후 3년 연속 참석, 5·18후손 및 5·18유가족과 동반 입장·헌화·분향 -
-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를 열어야”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18, 토) 오전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 재직 중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올해는 특히 5·18 정신이 대를 이어 계승된다는 의미로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립5·18민주묘지 입구에서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5·18 유가족 대표들을 태운 버스를 기다려 영접하고 ‘민주의 문’으로 동반 입장해 헌화 및 분향을 함께했습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했으며, 그날

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오월의 정신을 이어온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은 우리가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되었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은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기념식을 마친 후, 국립5·18민주묘지 1묘역에 안장된 故 박금희, 故 김용근, 故 한강운 유공자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끝>

식후 표역참배 대상자

연번	성명	공 적 내 용	비 고
1	 박금희(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3. 07. 13. ~ 1980. 05. 21. ○ 전남여상 3학년 ○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피가 필요합니다” 헌혈을 유도하는 가두 방송에 시민들을 구하고자 기독교병원에서 헌혈을 하고 나오다가 계엄군 총에 맞아 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6 (1묘역)
2	 김용근(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7. 10. 28. ~ 1985. 05. 22. ○ 평양 숭실학교 재학 중 신사참배 거부, 연희전문학교 재학 중 총독암살단 조직 혐의로 두 차례, 3년여간 옥고/ 애족장('90년) ○ 6·25전쟁 당시 육군 제9사단 입대하여 참전 ○ 고등학교 역사교사로 후학 양성, 은퇴 후 고향 강진에 귀농 중 5·18 당시 지명수배된 제자들을 숨겨준 죄로 6개월간 수감 ○ 수감 후유증으로 얻은 심근경색으로 '85년 사망, 제자들이 '95년부터 <김용근 민족교육상>을 제정하여 그 뜻을 기림 ○ 독립유공자이며 6·25참전하였고, 5·18민주유공자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6 (1묘역)
3	 한강운(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1. 10. 24. ~ 2002. 9. 29. ○ 화물차 운전사로 '80년 당시 시위 동참을 호소하고 시위대를 도청으로 이송하는 역할 수행 ○ 공수부대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경계근무 수행중 사직공원에서 붙잡혀 상무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함 ○ 석방 이후에도 형사들의 감시를 받고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2002년 42세의 나이로 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73 (1묘역)